

# 028

내국세 환급 시간 단축으로 외국인 관광객 불편 해소

## ‘만만디(慢慢的, 천천히)’ 내국세 환급, ‘와이디얼(快的儿, 신속)’ 처리 요우커(遊客, 중국여행객)를 붙잡아라!

“여행을 마치고 피곤한 몸 상태로 한참을 기다리려니 짜증나네요.”  
일주일 간의 서울 관광을 마친 중국인 X씨는 한국 백화점에서 산 지갑의 내국세를 환급받기 위해 무인자동환급기 앞에 한참 줄을 서야 했습니다. 환급기에 환급신청을 한 후에도 세금을 돌려받기까지 5분을 기다렸습니다.

내국세 환급만을 전담해 처리하는 서버 구축으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되면서 이런 불편이 해소됐습니다. 기존 환급처리에 사용하던 시스템은 데이터 처리에 5분 정도 소요되고, 데이터가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해 외국인 관광객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전용서버가 구축된 후로는 외국인관광객의 출국소요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요우커 등 나날이 늘어나는 외국인 쇼핑관광객의 편의에 큰 기여를 한 것입니다.



- 내국세 환급(Tax-refund) 연 244만 9,000건 신속 처리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예상



### 개선 전

관세청 문서유통시스템 사용  
처리시간이 늦고(약 5분 정도 소요) 데이터가 유실되는 경우가 발생해  
안정적 운영 곤란

### 개선 후

**내국세 환급 전용서버 구축**  
**처리시간을 40초로 단축, 데이터가 유실되는 사례 방지**  
내국세 환급 전용 서버구축 및 합동근무체제 운영 (관세청, '14.9월)

## 서비스도 이제 세계로 나갑니다!

“미래 유망산업을 키운다면서, 정작 ‘APEC 경제인여행카드’는 제조업체에만 발급해주는 건 낡은 규제 아닌가요?” 디지털미디어 수출입 업체에서 일하는 L씨의 불만입니다. 업무상 해외출장을 자주 떠나는 L씨는 복잡한 사증 신청 및 외국 입국심사 절차가 늘 번거로웠지만, 서비스업체 종사자란 이유로 ‘APEC 경제인여행카드’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L씨의 출장이 훨씬 편해집니다. ‘APEC 경제인여행카드’ 발급대상을 무형의 상품을 수출입하는 서비스업체까지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를 발급받은 기업인은 중국·일본 등 19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에선 전용 심사대를 이용해 빠른 출입국 수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국내 기업인의 출입국 편의 제공 및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제도 변경 이후 8,540명('14. 1월~11월)이  
APEC 경제인여행카드 신청, 전년 같은 기간  
신청자 수(6,786명) 대비 25.8% 증가



#### 개선 전

물품을 수출입하는 제조업체만을 대상으로 APEC  
경제인여행카드 발급

#### 개선 후

**용역(서비스), 전자적 형태의 무형 상품을 수출입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APEC 경제인여행카드 발급**

‘APEC 경제인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규정’ 개정 (법무부, '13.12월)